

2001년 석유정책 방향과 석유수급 전망



이 유 종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 〉

I. 2000년 석유산업의 회고

석유산업은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석유소비, 수출입, 정제능력 등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내수시장에서는 시장경쟁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하겠다.

지난 97년 석유제품가격, 수출입, 생산과 판매업 등 석유산업 개방화·자유화정책에 따라 그 간 정부의 보호하에서 안주해 오던 시장주체들이 경쟁의 場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적이며 우호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시장주체들간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값싼 수입석유제품들이 시장에 유입되어 기존의 정유사 및 중간 판매업자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과잉은 정유사들간은 물론, 기존의 판매업자들간의 알력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정된 국내시장을 둘러싸고 정유사와 정유사간, 정유사와 수입사간 공급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경쟁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과 판매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특히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연말까지 계속되어 석유에 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석유제품가격 및 국제현물시장으로부터의 수입 석유제품가격과 국내석유제품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의문은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비약되었고, 염매물량 확산, 공급자상표표시제위반 또는 수평거래금지 위반 원인에 대한 논쟁 등도 작년

한해를 장식한 화두였다.

이러한 논란은 시장기능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시장주체들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으며, 고유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시장경쟁효과의 조기시현 욕구도 한몫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석유산업에 있어서 시장주체들이 자기책임하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II. 2001년 석유산업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2001년 석유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 활성화와 석유수급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필요한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의존도가 77%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중 석유비중이 53%로써 석유는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의 필수재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직결돼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석유정책은 주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그 중점을 두어 왔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자주 원유개발 확대, 산유국과의 자원외교등 일련의 정책은 석유의 안정획득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가완충자금 확충, 석유비축 확대등은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할 수 있다.

지금도 석유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이 정책의 주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계적인 선·현물 시장의 발달와 함께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석유시장의 효율화가 새로운 정책수요로 떠오

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90년대초반부터 석유산업정책을 과거 보호주의에서 자유화·개방화 정책으로 그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95년에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97년에는 석유제품가격을 비롯하여 전면적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를 단행 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시장경쟁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나, 그 속도가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금년에는 석유산업이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과거 보호주의 정책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자기책임하에 공정경쟁의 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2. 2001년 석유산업정책 세부추진계획

□ 시장경쟁의 활성화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과점적 정유부문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석유산업의 특성상 정유부문이 과점시장으로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정유부문이 유통부문을 지배 내지는 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에 있어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석유유통시장은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이후 주유소 난립, 소위 중상이라 불리는 대형 일반판매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유통시장 확보를 위해 비용지불없이 free-ride하려는 일부 공급자들과 기존 공급자들간의 알력 등으로 균형이 파괴되어 새로운 질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급자 상표표시제도를 개선하고 석유제

품전자상거래제도를 활성화 시켜 유통질서 문란의 주원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상표표시제도에 관하여는 관련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현행 단일상표표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정부는 1/4분기중 상표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부입장을 최종정리하고 상반기중 석유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자 선·현물 시장 창설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유통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여 석유유통의 투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석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되, 외국의 경우와 같이 원유와 수입 석유제품간의 관세차등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석유안보를 위해서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동 산유국과 고위급회담 개최 등 대 산유국외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월 초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란, UAE, 오만등 주요 산유국 순방외교를 펼친 바 있다.

이들 산유국과의 교류확대는 석유의 안정적 확보외에도 에너지플랜트 수출 확대, 산업협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동의존도를 낮추고 적정수준의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비율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세계 제4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IEA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IEA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주요소비국들과 국제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석유위기 대응능력 확충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비축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비축을 2000년말 현재 29일분에서 2006년까지는 60일분으로 확대하여 민간비축분을 포함하여 위기시 3개월 사용량을 비축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는 2백만B(S-OIL)의 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총 231백만B(정부 96.0백만B)의 설비를 보유하게 되고, 12백만B(정부:7.7백만B)의 비축유를 추가 구입하여 총 141백만B(정부:65.5백만B)의 비축유를 보유하게 되어 지속일수는 작년보다 1~2일 늘어난 67일분 수준(정부31일, 민간 36일)에 이를 전망이다.

이외함께 향후 비축소요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제3차 비축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적기에 최저가로 비축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석유공사내에 국제 유가예측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나갈 것이다.

□ 소비자보호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석유 판매업소의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과징금보다는 사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유가상승과 함께 신너 등 페인트희석제를 불법적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이들 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Ⅲ. 2001석유수급전망(안)

금년도 국제유가는 작년도 보다 약 2\$/B이 낮은 24~25\$/B수준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성장률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5~6%대의 중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중에는 기업구조조정, 실업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4%대의 저성장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107백만B로 예상되며, 이 중 내수는 국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수출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제품 수급전망(안)

(단위 : 천bbl, %)

구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소계	내수	방카링	수출	소계
2000	927,022	210,178	1,137,200	742,426	46,468	306,725	1,095,619
	(1.7)	(9.6)	(3.1)	(3.2)	(Δ5.3)	(2.9)	(2.7)
2001	922,565	220,135	1,142,700	760,450	45,688	300,941	1,107,079
	(Δ0.1)	(4.7)	(0.5)	(2.4)	(Δ1.7)	(Δ1.9)	(1.0)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공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143백만B로 예상

되며, 국내생산은 석유수요 둔화에 따른 정유사가동율 조정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고, 수입은 저유황B-C유 및 LPG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는 수요증가추세 둔화에 따른 정유사의 가동율 조정등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891백만B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유황 B-C유 공급을 위한 서아프리카산 등 저유황원유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bbl, %)

구분	원유도입		원유처리		가동율
	원유도입	증감	원유처리	증감	
2000	893,707	2.2	890,717	2.1	99.8
2001	891,260	Δ0.3	883,426	Δ0.8	99.3

* 일평균 원유처리량 : ('00) 2,434천B/D → ('01) 2,420천B/D

IV. 석유산업에 대한 바램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산업중의 하나인 석유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국가경제의 혈액이란 점에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석유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시장주체들에 대하여는 단순한 사기업 차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석유산업 전분야가 자유화·개방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개선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이 자기책임하에 공정경쟁의 룰에 따라 행동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석유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을 맞아 석유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 신 석유문화를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